

古代詩歌에 나타난 自然意味

—新羅·高麗詩歌를 中心으로—

金 基 卓

<目 次>

- | | |
|---------------|---------------|
| 1. 序 論 | 4. 自然의 同和와 叙景 |
| 2. 自然의 抒情과 寓意 | 5. 結 論 |
| 3. 自然과 交感의 世界 | |

1. 序 論

우리 나라의 古典文學 主流는 散文보다 詩歌文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上代로부터 시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장르의 詩歌가 발생되고, 한 때 盛行하다가 時代의 思潮의 변천에 따라 自然消滅을 면치 못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詩歌들 거의가 自然을 직접 제재로 삼지 않고서는 作品世界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自然과 文學의 관련성은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는 우리 文學의 外적 조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上代의 詩歌文學도 人間 自我의 문제에서 비롯하여 人間과 人間의 관계로 형성되는 社會와 그 환경으로서 自然이 중요한 素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조선조 士大夫 文藝의 主流的인 素材는 自然이었다.²⁾ 이 自然은 形而上學의인 것으로부터 具象的, 感覺的인 것까지 그 폭이 다양하다.³⁾ 이렇게 다양한 自然觀도 한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어디

1) 丘仁煥·丘昌煥 共著, 文學概論, 서울·三英社, (1976), p. 64.

白鐵著, 文學概論, 서울·新丘文化社, (1972), p. 89.

2) 鄭在鎬, 「歌辭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국어국문학, 72, 73 합병호, (1976), p. 177.

3) 金東旭, 「韓國文學의 基底」,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pp. 14~17.

까지나 上代人的 詩歌觀과 自然觀에서 비롯되어 계승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上代의 詩歌文學이 어떻게 自然과 관련되어 表現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自然의 抒情과 寓意

上代人들은 自然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도 하였지만, 時代의 흐름에 따라 도리어 自然을 정복하면서 人間은 自然과 끊임없는 상호보완 作用을 해왔다. 人間社會가 自然 속에서, 그리고 自然 위에서 成立해 있는 만큼 人間과 自然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人間이 自然을 정복한 정도에 따라서, 또 해당 社會의 성격에 따라서 人間과 自然이 맺고 있는 가장 基本的인 관계는 人間의 生存을 위한 투쟁 대상으로서의 관계이다. 人間이 터를 잡고 생활하는 自然, 人間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끝없이 투쟁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自然, 人間의 기본적인 生活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 人間 활동에 의해서 부단히 改變되는 自然, 이것이 自然의 本來的인 모습이고, 이런 의미에서 人間이 自然과 맺는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人間과 自然은 마치 천(布)의 씨와 날같이 함께 짜여져 있는 것이다.⁴⁾ 따라서 人間은 그 自然에 순응하여 살아가고, 自然의 품 속에 안겨서 살려고 하는 自然觀이 文藝에 나타나고 있다. 마치 동양화에서는 自然의 遠近이 그려지고 自然을 이상화시켰다. 한편으로 宇宙自然의 운행질서와 변화현상의 관찰을 통하여 國家社會의 통치규범과 人倫關係 내지 個人生活에 있어서의 修養의 德目を 發見하려고 하였다.

이에 上代의 國文學에 나타난 自然觀을 살펴 본다면 古代人은 언제나 大自然에 대하여 危懼之心을 가지고 있었다. 大自然에 대하여 驚畏나 神秘的 崇高한 感情은 그 自體속에 美感을 內包하거나 또는 先行하는 것으로 上代人들은 精靈視, 神格化하고 風光明媚한 山水自然을 神의 處所 또는 降神處로 看做하여 寺祠를 세우는 일은 일종의 美意識이 自然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檀君神話에 나타나는 風伯, 雨師, 雲師, 河伯, 天神 등의 神格名과 東明聖王 誕生神話에 등장하는 柳花, 萱花, 葦花 등은 外來的 色彩라고 볼 수 없는 民族的인 美意識의 형성으로서 自然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4) 宋載邵著, 茶山詩研究, 서울·創作社(1986), pp. 94~95.

이와 같이 自然 속에 神의 處所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敬虔한 宗教의인 情緒로서 自然에 대한 美意識의 萌芽라 하겠으나, 이는 끝내 藝術을 통하여 人生에 밀착하는 抒情 대개체로서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上代 이전 神話時代부터 벌써 우리 自身の 自然觀이 나타났음을 事實로 인정할 때⁵⁾ 宗教의 식체가 짙어지지만 自然에 대한 感覺의 美感을 인지하였는지도 모른다. 그 외에도 高句麗의 會獵, 花郎의 名山大川에의 귀는 自然 속에 生動하는 生命感을 흡수하여 그들의 豪放한 정신생활을 陶冶한 것은 自然美를 人間에 도입시킨 것이다.

특히 上代の 歌謠인 筵篋引, 黃鳥歌는 自然을 素材로 한 詩歌임에 틀림이 없다. 앞에 것은 江물을 배경으로 한 白水狂夫의 逸사를, 뒤에 것은 사랑의 苦惱를 黃鳥에 比喻하여 지은 抒情詩歌다.⁶⁾ 즉 江·黃鳥의 自然物을 매개로 하여 主人公의 內面世界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抒情가요로서 自然美를 각각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그의 新羅의 鄉歌나 高麗가요도 自然이 詩歌에 나타나고 있지만 朝鮮朝 詩歌에 나타나는 自然과는 차이가 있다. 즉 朝鮮朝 以前 詩歌에 나타나는 自然은 自然 自體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드물고, 또한 그들 作家가 自然에 묻혀 살며 몸소 그 美를 체험하고 이해하여 노래한 것이 아니다.

新羅의 鄉歌 14首 가운데 薯童謠, 擘星歌, 願往生慕, 竹旨郎歌, 獻花歌, 怨歌, 祭亡妹歌, 讚耆婆郎歌, 處容歌 등 九首가 自然이 노래의 題材로서 지어졌다고 본다. 「薯童謠」에 나오는 무대의 <밤>은 원시적인 素材性을 면치 못하나, 「擘星歌」에서는 <별>을 통하여 自然을 觀賞하지만 詩歌에 表現하지 못하고, 도리어 自然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自然現象을 하나의 呪術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擘星이 나타남으로써 왜군이 침범해 올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또 한편으로 「擘星歌」에서 表現하는 天體의 擘星이 三花의 遊山과 결부시켜 擘星의 出現이 의인화된 점은 은유적인 효과까지 描出시킨 것이⁷⁾ 특이하게 볼 수 있다. 또 信忠이 지은 「怨歌」는 新羅 孝成王이 信忠에게 약속한 바를 저버리고 공신을 賞 酬 때에 信忠를 빠뜨렸으므로, 이에 信忠는 「怨歌」를 지어 栢樹에 붙였더니 그 나무잎이 말라

5) 金宅圭, 韓國文學에 나타난 自然과 그 表現의 進化, 대구·靑丘大學 論文 2집, (1968), p. 3.
 6) 黃沢江·尹元植, 韓國古代歌謠, 서울·세문사(1986), p. 15.
 7) 金宅圭, 앞의 논문, p. 62.

떨어졌다는 노래이다. 이것은 물론 詩歌가 神界에 통하는 마력이 있다는 뜻도 담겨 있지만, 自然 속에 한 靈異한 힘을 느끼고, 自然에 대한 사랑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迎神歌」나 「海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또 달을 題材로 하는 「願往生歌」는 노래 內容에 나타나는 정서와 用法이 백제 노래 「井邑詞」와 비슷하여 抒情詩的인 맛이 天體自然을 통하여 한결 감동을 주고 있다고 본다. 「慕竹旨郎歌」의 〈봄〉은 天體運行에 의한 時序의 感興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千尋絶壁上의 철쭉꽃을 기어이 갖고 싶어 하는 水路夫人의 욕망表現과 함께 질붉은 바위에 질푸르고 깊은 바다 사이에 만발한 붉은 철쭉의 색채감각의 대비는 詩中有畫의 묘사와 더불어 「作者의 솔직한 自然美的 감각을 엿 볼 수 있다. 달그림자 지는 못가에서 그림고도 원망스런 님을 그리는 「怨歌」의 心情을 抒情的 낭만을 그대로 나타내고, 秋風에 덩구는 낙엽을 兄弟의 永訣에 비유한 「祭亡妹歌」. “其意甚高”라고 까지 景德王이 讚한 「讚耆婆郎歌」는 鄉歌중에서 가장 많은 自然事象을 素材로 삼고 있다. 즉 “밝은 달” “흰 구름” “파란 물가” “조약돌” “눈” “松栢” “花瓣” 등의 詩的 表現은 耆婆郎의 心性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어 이는 作者가 自然의 통찰력이 깊은 데서 우러난 결과라 하겠다. 「處容歌」에서 밝은 달에 쫓겨 밤새 노니는 處容은 自然과의 交感을 즐기는 神子로서 自然에의 洞察力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新羅詩歌에는 自然이 많은 量을 차지하여 作品의 素材가 되면서 人間情緒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즉 作品에 나타난 風物. 四時萬物, 雲, 月, 花 등은 모두 自然의 運行에서 오는 時間의 경과 또는 現象의 變化에서, 作家의 예리한 관찰력이 움직여 人間情緒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新羅以前의 自然觀에는 비록 東洋의 思考方式의 특성으로 具象性和 體系的인 계통이 빈약하고 主觀的인 偏在性이 있다고⁸⁾ 볼 때 朝鮮朝의 自然觀과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즉 自然현상의 變化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묘사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의인화하고 寓意로서 사용한 것도 먼저 그 自然 自體로서의 관찰을 통한 결과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모든 文藝創作의 계기가 되는 情感의 흥동은 自然현상의 變化에 의하여 觸發된다

8) 金宅圭, 앞의 논문, p. 62.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新羅를 포함한 以前의 詩歌는 自然의 叙景物에 감동되어 情志를 吟咏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모두 自然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自然현상의 변화에 따라 人間情緒가 자연스럽게 文藝上에 나타나는 것도 고려 초기까지 이어져 왔으나, 中國의 朱子學 思想이 流入되면서 自然觀에 대한 순수 抒情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3. 自然과 交感의 世界

高麗中期에 오면서 中國의 宋代 儒學思想이 본격적으로 지배하자 우리 固有의 主體가 상실되고 中國의 기성관념이 그대로 도입되면서 模倣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 以前까지는 自然은 人間情緒의 배경으로서 文藝上에 느낄 수 있는 快感을 직접 體得하는 우리 고유의 人間性을 表現하였다. 이러한 뜻은 高麗俗謠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靑山別曲」에서처럼 靑山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고 싶어 하는 自然과 交感의 世界를 형성하고 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덜위랑 드래랑먹고 靑山에 살어리랏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다래 살어리랏다.

늑막자기 구조개랑먹고 바다래 살어리랏다.

〈靑山別曲〉

와 같이 自然에 대한 危懼의 관념은 사라지고, 山과 바다를 찾아 自然과의 親近性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平民들이 지은 俗謠에서는 中國의 性理儒學思想이 물들지 않는 韓國 固有의 鄉土的인 색채가 그대로 비춰지면서 自然은 人間의 虛慾을 없애 주는 生命의 安息處로 상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高麗中期의 時代的 배경에서 볼 때 靑山과 바다는 人間의 향수를 달래주는 逃避的인 요소와 同時에 自然에 순응해야만 하는 敗北의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思想에 대하여 金宅圭 교수는

高麗 中葉以後의 武班政策과 거기에 失意한 閑客의 嗟嘆, 그리고 이에 乘時한 中國의 主觀的인 自然觀이 合致되어 벌써 李朝에서 꽃핀 陶醉文學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景幾體歌에서 보이는 表面 客觀的인 美意識의 描寫도 作家들의 世塵生活과 比較考察해 보면 어딘지 黃土大陸의 냄새가 짙다. 그 形式은 俗歌의 韓國的 意調를 應用하였다지만 全綴 漢字로 이뤄진 노래들의 알맹이를 民族의 순수한

6 嶺南語文學(第14輯)

自然感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高麗의 景幾體歌가 中國의 清淡派 隱逸派의 영향하에 충분히 理解된 自然을 그려왔다 하더라도 趙潤濟 교수의 이른 바와 같이 自然을 그저 素描했을 뿐이지 自然中에 感覺되는 情趣라든가 自然中에 끌려들어가는 情緒 即 百分觀察을 통한 이해에서 오는 哲學的 交感의 境地는 發見키 어렵다.」⁹⁾

라고 하여 高麗後期부터 朝鮮朝 初期의 文學에 나타나는 自然觀의 면모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靑山別曲」에서처럼 失戀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山이나 바다로 도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지만 兩班社會에서는 自然을 통하여 藝術的인 抒情美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즉 麗末의 李兆年이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 三更인제
一枝春心을 子規야 알아마는
多情도 病인양하야 잠못드러 호노라」
〈靑丘永言〉

또 李穡도

「白雪이 즈즈진 물에 구름이 머호래다
반가운 梅花는 어너 곳되 피엿논고
夕陽에 홀노셔서 갈곳 몰라 호노라」
〈靑丘永言〉

고 읊음과 같이 文學的 表現에 自然을 導入하여 藝術的 抒情性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麗末에서 朝鮮朝로 넘어오는 과도기에서 볼 수 있는 例의 하나다. 이미 그 以前 高麗 中期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景幾體歌인 「翰林別曲」에서처럼 塵世生活의 도피처로 自然을 노래하였으며, 특히 당시 漢詩를 즐겨하는 양반사회에서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다.

高麗 中期 以後에는 무신정권하에서 失意한 士大夫 文人閑客들이 自然에의 귀의가 主流를 이룬다고 하겠다. 곧 自然에 돌아가 隱遁하면서 獨自의인 世界를 창조하고자 하였지만, 朝鮮朝의 士大夫 文人들처럼 참된 自然美 발견은 없었다. 여기에 대하여 趙潤濟 박사는

高麗文學에서는 이미 많은 自然美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高麗文學에 있어서의

9) 金宇圭, 앞의 논문, p.63 인용.

自然愛는 叙景而已지 自然中에 感覺되는 情趣라든가 自然中에 끌려 들어가는 情緒란 것은 아직 發見할 수 없다. 말하자면 自然은 아름다운 것으로 그대로 客觀적으로 存在하였을 뿐이지 거기에 아직 불타는 生命의 躍動을 暗示하는 點은 發見하기가 困難하다.¹⁰⁾

라고 하였듯이 麗朝文學에 나타난 自然認識과 自然美의 發見이 오로지 景物의 묘사에 치우쳤고, 自然중에 沒入되어 들어가는 情緒가 作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國字로 재현된 國문시가를 두고 말한 것 같다. 그러나 당시 士大夫文人들이 즐겨 지은 漢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즉 李奎報(1168~1241), 李仁老(1152~1220), 李資玄(1061~1125) 등의 高麗朝 文人들이 남긴 漢詩作品 中에는 賞自然이나¹¹⁾ 自然愛에 관한 것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賞自然이나 自然愛는 人間이 自然에 대한 지배나 自然에 대한 반대감정의 형성, 自然的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갈등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人間과 自然 사이의 궁극적인 調和를 뜻하는 것이다.

高麗朝 文人들의 漢詩에 나타난 賞自然과 俗謠에 나타난 自然愛는 곧 朝鮮朝 叙景詩歌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朝鮮朝에 오면 士大夫 文人들이 自然美를 통해서 人間 스스로 自然에 同和 순응하려는 뜻이 詩歌의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自然과 調和를 통해서 自然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속에 內在해 있는 自然美를 찾아내는 作業은 士大夫 文人의 특출한 詩的 상상력과 뛰어난 직관적 감각기능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麗朝의 叙景 漢詩作品이나 朝鮮朝 叙景歌辭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잘 나타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었다. 결국 高麗 中期 以後부터 나타난 文人들의 漢詩作品이 朝鮮朝의 叙景歌辭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4. 自然의 同和와 叙景

高麗時代 文學에 있어서 山水 自然에 대한 인식 양상이 쉽게 究明될 수는 없지만, 時代思潮나 社會現實이 多樣하고 中期 以後 政治秩序의 혼란으로

10) 趙潤濟, 「國文學概論」, 서울·東西文化社(1955), p. 423.

11)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1977), pp. 56~57.

인하여 自然愛에 대한 詩의 想像力도 뛰어나왔을 것이다. 특히 李奎報의 漢詩에서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歸去來詩도 朝鮮朝에 연결되는 賞自然에 관한 叙景詩로서, 江湖自然을 통해서 發見되는 審美性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나아가 人間과 自然 사이의 궁극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人間이 自然美를 통해서 스스로 自然에 순응하려는¹²⁾ 뜻이 결국 朝鮮朝 士大夫 文人들에게도 같은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미 고려시대에도 自然으로 歸去來하는 뜻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즉 하나는 自然이 가지는 秩序와 調和를 欽慕하여 스스로 自然에 귀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政治現實 상황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公務에 대한 일시적인 離脫의 뜻으로 自然에 귀의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前者는 自然을 순수하게 理想世界로 憧憬하여 그 自然에 자신을 投擲함으로써 거기에서 가지는 自我世界를 확립하고자 하는 반면, 後者는 政治現實에 대한 自己의 不滿에 의해서 自然으로 물러나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 현실상황에 따라 自然을 일시적으로 향유할 따름이지 前者처럼 自然속에서 자신의 영원한 安息을 도모하거나 自然美를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籠中鳥竟日幾千廻
縱有一鳴脣舌在
那堪四觸羽毛摧
餽食益哀哀
天上路回首夢悠哉
再欲鳳池猶有意
新砌高府豈無媒
且復待時來

새장 안의 새 온종일 몇천번이나 돌고 돌았는지
부리와 혀가 있어 한번 울 수 있지만
사방에 부딪쳐 깃 꺾이니 어찌 견디랴
먹이에 굶주려 더욱 슬픈데
하늘 길이 물어보니 꿈같이 아득하여
다시 봉지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네
새로 생긴 오부에 어찌 준마없으리
다시 때오기만 기다릴 뿐이네¹³⁾

이 詞는 李奎報가 桂陽에 放逐되어 살면서 지은 것인데 自然을 관조하고 親自然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自然에 돌아와 生活하는 가운데 침체되고 無爲한 자신의 처지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政治現實로 志向 내지는 復歸하고자 하는 意志가 나타나 있다. 李奎報의 귀거래는 自然樂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自身이 소망하는 世界가 이루어지면 上昇된 現實에 복귀하려는 뜻과 함께 잠깐 동안의 避世樣相도 보이는 詩人이다.¹⁴⁾ 따라서 그의 自然詩는 自

12) 朴性奎 著, 「李奎報研究」, 대구·계명대학교출판부(1982), pp.94~95.

13) 全集 卷十五 古律詩 <籠中鳥詞望之江南令>.

14) 朴性奎, 앞의 책, p.14.

然에 은거해 있으면서도 現實世界를 志向·憧憬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같은 高麗時代 詩人 李資玄은 世俗을 버리고 江湖自然 속에 노닐려는 本性을 가지고 오직 自然에 깊이 침잠하여 그 속에서 삶의 진실된 道를 求하고자 한 사람이다.

李資玄(1061~1125)은 高麗朝 文人 중에 自然에 대한 詩의 상상력과 직관적 감각 기능을 가진 詩人이다. 그는 生存時 時俗을 등지고 自然에 隱居하여 참된 自然美를 추구하고 自然樂의 경지에 도달한 文人으로서 自然에 귀거래하여 求道와 自足을 도모한 고려조의 대표적 人物이다. 그의 處世가 「高麗史」列傳에 기록된 것을 옮겨 보면

「資玄이 갑자기 벼슬을 버리고 淸平山에 入山하여서는 文殊院을 짓고 살았는데 蔬食을 즐기며 布衣를 입고는 禪道를 즐겼다. 睿宗이 內臣을 보내서 茶香과 비단을 下賜하고 여러번 불러 오게 했지만 資玄이 마침내 表를 올렸다. 그 表文에 “새로서 새를 길러 鍾鼓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고기를 보고 고기를 알아 그로 하여금, 江湖에 노닐려는 本性을 잃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다.」¹⁵⁾

라고 했으니 李資玄이 自然에 귀거래하는 이유가 뚜렷하다. 곧 淸平山의 山水에 묻혀 功名과 利欲에 들뜬 世俗과 단절하고 오로지 自然에 순응해서 살아가려는 處世觀이 잘 나타나고 있다. 李退溪도 李資玄의 歸去來를 찬양하였지만 단순한 그의 自然樂만을 추모한 것이 아니고 道學的인 의미에서 高蹈遠引한 귀거래를 높이 評價했을 것이다. 이러한 李資玄의 隱遁的 歸去來는 朝麗朝 士大夫 文人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高麗의 李資玄은 自身이 自然에 귀의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떤 道德的 懸念에 의해서 구속되기 보다는 오로지 自然에 깊이 沒入하여 自身의 本性을 지키며 樂自然·親自然하자는 생각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退而自守)하는 李資玄의 귀거래는 훗날 朝鮮朝 士大夫 文人들이 보여 주었던 自然의 歸依가 얼마 가지 않아 곧 現實의 憧憬으로 이어지던 行爲와는 對照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朝鮮朝에는 이러한 自然歸依의 泉石膏肓이라는 순수한 自然愛의 개념을 지킨 文人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詩歌를 통해서 볼 때 處世에 있어서 보다 순수하고 심화된 世界觀을 가지고 自

15) 『忽棄官入淸州淸平山 葺文殊院居之 蔬食布衣 以禪道自異 睿宗遣內臣 賜茶香金帛 累詔徵之…〈中略〉…遂上表曰 以鳥養鳥 庶無鍾鼓之樂 觀魚知魚 俾遂江湖之性』(高麗史 列傳 卷第八)

然美를 表現한 文人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高麗의 歸去來는 獨善과 兼濟의 現世的인 道の 完成을 추구하기 보다는 自然에 깊이 침잠하여 俗世와는 다른 보다 확립된 自身の 世界觀을 自然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自然에 깊이 몰입함에 따라 自然物에서 審美的인 것을 얻고, 自然에 內在해 있는 질서와 조화의 發見으로 自然으로부터 객관적인 진실성을 올바르게 직관하게 된다는 사실을 漢詩作品中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高麗朝의 漢詩作品中에 나타난 自然 묘사는 親自然을 함으로써 그 自然의 叙景美를 發見하고, 抒情을 매체로 한 自然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高麗의 文人들은 自然의 本性을 깨닫고, 自然을 있는 그대로 觀照하여 그 속에 內在해 있는 아름다움을 發見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自然認識은 朝鮮朝에 그대로 表現되었다고 하겠으나 高麗朝와 다른 점은 朝鮮朝 士大夫 文人들이 作品創作에 있어서 지나치게 道德律에 구속되었기에 自然認識의 태도에 있어서 自我가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16세기의 대부분의 士大夫 文人들이 創作한 江湖叙景詩歌가 自然 속에 處하면서도 現實世界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憧憬하는 마음이 잠재적으로 作品 속에 깔려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時調보다도 歌辭作品中에서 더욱 느낄 수 있었다.

5. 結 論

지금까지 살핀 바, 高麗以前의 古代 詩歌에 나타나는 自然意味는 人間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즉 人間은 自然을 통하여 抒情을 느끼고 自然과의 交感과 同和 속에서 새로운 世界를 추구하였다.

특히 新羅 以前 上代社會에서의 自然은 神의 降臨處로 神聖視하여 危懼之心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점차 人知의 발달로 神의 處所라고 여겨지는 山水自然을 人倫의 규범을 삼기 시작하면서 美意識을 싹트게 하였다. 이러한 美感의 表現은 新羅 鄉歌중에서 自然物을 素材로 한 抒情詩歌에서 寓意性이 내포된 自然詩歌로 형상화시켰다. 鄉歌 14首中 9首의 詩歌는 自然物을 통하여 人間의 유한적 존재를 넘어 영원성을 기리는 美的 存在 가치로 형상화 내지 寓意性으로 表現한 詩들이다. 이들 詩의 초월적 공간은 언제나 하늘, 달, 西方, 山水 등의 自然物이 共通요소로 드러나고 있다. 우주적으로 높은

곳, 그곳은 본질의 世界이며 人間 궁극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高麗 초기에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 중기에 오면서 自然에 대한 인식 양상이 變化되기 시작한다.

高麗時代에 오면 自然에 비해 수평적인 人間の 삶은 윤택하고, 세속적이고, 보잘 것 없는 부족함의 존재로서 自然과 交感을 통한 理想的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가 엿보였다.

특히 高麗 俗謠에서 世俗의 원리를 피하고자 自然을 선택하려는 意識이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兩班社會에서는 自然을 통하여 藝術的인 서정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식이 서로 대조가 되어 새로운 世界의 양극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自然에 대한 藝術的인 서정성 追求는 朝鮮朝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自然과 叙景이라는 독자적인 美意識 추구가 사대부 作品에서 엿보이기 시작한다.

결국 高麗中期에 성립된 自然과의 交感意識 추구가 朝鮮朝에까지 지속되어 時調보다 江湖叙景歌辭의 生成에 根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